

■ 주요 뉴스: 미국 기대인플레이션 상승, PMI 둔화 등 경제지표 부진

- 유로존 2월 HCOB 종합 PMI 속보치, 예상 하회
- 영국 2월 PMI, 4년만에 가장 빠른 속도의 인력 감축 움직임
-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, 미국 관세부와 강행 시 상당한 경제적 타격 불가피

■ 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경제지표 부진으로 위험회피심리 강화

주가 하락[-1.7%], 달러화 강세[+0.3%], 금리 하락[-8bp]

- 주가: 미국 S&P500은 소비심리 악화,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등으로 하락
유로 Stoxx600지수는 0.5% 상승. 주간 기준(+0.3%) 9주 연속 상승
- 환율: 달러화지수는 전일 연저점 기록에 따른 저가매수 등으로 소폭 반등
유로화 가치는 -0.4%, 엔화 가치는 +0.3%
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위험회피심리 강화로 하락
독일 10년물 국채금리는 총선 불확실성 등으로 6bp 하락

※ 뉴욕 1M NDF 종가 1433.5원(스왑포인트 감안 시 1435.6원, 0.11% 상승). 한국 CDS 상승

		2/21일	2/20일	전일대비			2/21일	2/20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6,013.1	6,117.5	-1.71%	국채 금리 10y	미국	4.43%	4.51%	-8bp
	유럽	553.85	551.01	+0.52%		독일	2.47%	2.53%	-6bp
	중국	3,379.1	3,350.8	+0.85%		영국	4.57%	4.61%	-4bp
	일본	38,777	38,678	+0.26%	CDS 5y	한국	30bp	29bp	+1bp
	한국	2,654.6	2,654.1	+0.02%		중국	47bp	44bp	+3bp
환율	달러지수	106.64	106.37	+0.25%	위험 지표	EMBI+	-	364	-
	유로화	1.0458	1.0501	-0.41%		VIX	18.21	15.66	+16.28%
	엔화	149.27	149.64	+0.25%		WTI유	70.4	72.57	-2.99%
	위안화	7.2523	7.2429	-0.13%	원자재	구리	456.0	461.2	-1.13%
	원화	1,434.1	1,436.0	+0.13%		금	2,936.1	2,939.0	-0.10%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미국 기대인플레이션 상승, PMI 둔화 등 경제지표 부진

- 1월 미시건대 향후 5년 기대인플레이션은 3.5%로 속보치(3.3%)와 전월치(3.2%)를 모두 상회, '95년 이후 최고수준으로 상승. 1년 기대인플레이션은 4.3%로 '23.11월 이후 최고
- 1월 미시건 소비자심리지수는 64.7로 속보치(67.8)와 전월수준(71.1)을 모두 하회. 고가 품목에 대한 구매여건 등 심리지수의 5가지 항목 모두 악화
- 미국의 2월 S&P Global 종합 PMI 속보치는 50.4로 전월(52.7) 대비 하락. 제조업 PMI는 51.2 → 51.6으로 소폭 상승했으나, 서비스업 PMI가 52.9 → 49.7로 급락한 데 기인
 - 금년초 약 3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던 기업들의 낙관론이 재정지출 축소, 관세, 지정학적 불안 등 신정부 정책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반전되는 모습(S&P Global)
- 기존주택판매는 전월대비 -4.9% 감소하며 작년 9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. 작년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모기지 금리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주택가격은 지속 상승하고 있어 주택 구입에 대한 부담이 지속(NAR)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유로존 2월 HCOB 종합 PMI 속보치, 예상 하회

- 유로존 2월 종합 PMI는 50.2로 예상(50.5)을 하회. 역내 전반적으로 서비스물가지표가 상승하거나 높은 수준을 유지해 3월 추가 금리인하 기대가 약화될 소지

■ 영국 2월 PMI, 4년만에 가장 빠른 속도의 인력 감축 움직임

- 영국 S&P 종합 PMI 속보치는 1월의 50.6에서 50.5로 소폭 하락했으나, 고용지수는 45.3에서 43.5로 '20.11월 이후 최대폭 하락. 정부의 사회보장 기여금 및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고용비용 증가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
- 영국 1월 소매판매는 1.7% 증가(예상 +0.5%)했으나 대부분 '20.3월 이후 최대치로 증가한 식품 판매에 기인. 식품 및 에너지 가격 상승, 글로벌 무역 전쟁 발발 우려 등으로 가계의 소비 확대가 일시에 그칠 소지

■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, 미국 관세부와 강행 시 상당한 경제적 타격 불가피

- 미국과의 무역마찰에 따른 충격은 수출 및 투자 감소, 일자리 감소, 인플레이션 상승 등으로 캐나다의 경제 궤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경고. 향후 2년간 경제는 3% 위축될 가능성

■ 금 가격, 8주 연속 주간 상승

- 지정학적 긴장감, 무역분쟁 등으로 안전자산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금 가격은 8주 연속 상승(전주대비 +1.9%, '20년 이후 최장 기간)

■ 우에다 BoJ 총재, 가파른 국채금리 상승에 채권시장 개입 경고

- 10년물 국채금리(장중 고점 1.466%)가 '09년 이후 최고수준으로 상승한 가운데, 장기 국채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는 예외적인 경우 시장 안정을 위해 국채매입에 나설 것이라고 발언. 구체적 상황과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 회피
- 카토 재무장관은 국채금리 상승은 부채상환 비용 증가를 의미하며, 일본의 GDP 대비 부채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정지출에 압력을 줄 수 있다고 경고
- 한편 일본 1월 CPI 상승률(헤드라인 전년동월비 +4%. 신선식품 제외 +3.2%)이 '23년 이후 최고수준으로 확대. BoJ의 추가 금리인상 시점이 예상보다 빨라질 소지

■ 중국인민은행, 단기금리 상승에 따라 유동성 공급

- 인민은행은 840억위안 규모의 유동성 공급을 단행. 이는 2월 들어 최대 규모. 이에 따라 익일물(1.5%, -84bp), 7일물(1.75%, -31bp) 레포금리 대폭 하락

■ 필리핀 중앙은행, 기준율 200bp 인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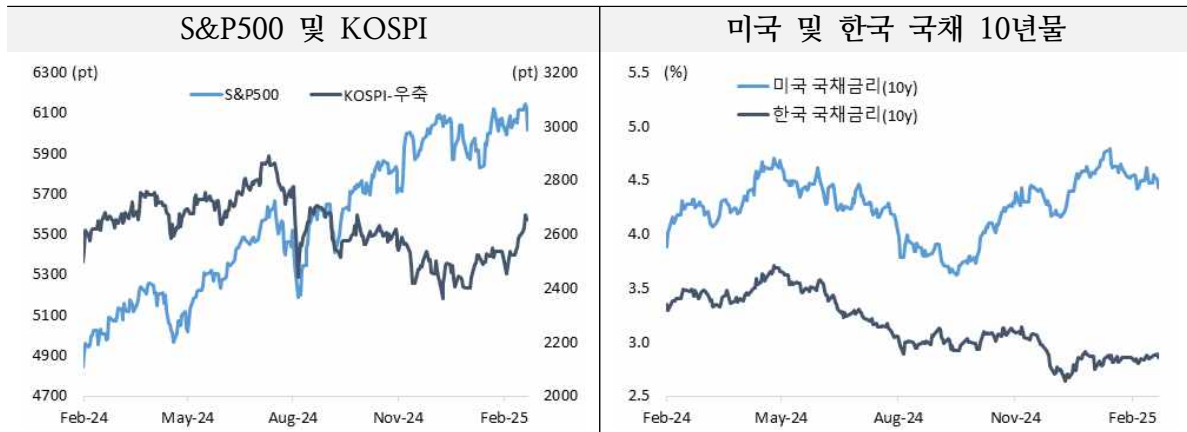
- 지난 2월 통화정책 회의에서 상반기 중 기준율 인하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, 3.28일부터 대형은행들에 대한 기준율을 7%에서 5%로 200bp 인하한다고 발표. 작년 10월(-250bp)에 이어 큰 폭으로 인하

주요 경제지표

■ 다음주 주요 경제 이벤트(2/23~3/1)

- 미국 1월 PCE, 24년 4분기 GDP 수정치
- 중국 국가통계국 제조업 및 서비스업 PMI
- 유로존 1월 HICP, 1월 ECB 통화정책회의 의사록

금융시장 주요 지표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74, E-mail yshwang@kcif.or.kr